

08
2025

재외동포의

창



특집 _ 광복 80주년
기획 _ 이재명 대통령, 재일 및 재미 동포 간담회
이달의 재외동포 _ '압록강은 흐른다' 저술한 독립운동가 이의경 지사



광복 80주년 기념 광복절 경축식

한국어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현실적 조건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와 교사들이 모여 결성한 전문 공동체다. 우리는 언어 교육을 넘어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하고, 차세대가 민족적 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포럼과 연수,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그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호감은 크지만, 대학의 한국어 전공 등록자 수는 정체 상태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동유럽에서는 한국 기업 취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실질적 동기 덕분에 한국어 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전망은 결국 학습자의 진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평일에는 대학에서, 주말에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왔다. 두 교육 현장은 성격이 다르다. 한글학교는 한인 2~3세 동포들에게 언어와 함께 역사·문화·정체성을 가르치는 데 주력한다. 반면 대학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중심이다. 학점과 성취도가 중요하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수법이 적용된다.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K-팝이나 드라마에 이끌려 오지만, 점차 한국 사회와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로 학습을 확장한다. 이 두 교육 트랙은 다르면서도 서로 보완적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저변을 넓힌다는 공통된 목표로 이어져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전공자의 진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다. 북미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해도 관련 일자리가 제한적이라 많은 학생이 다른 길을 택한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내 취업 기회가 비교적 많아 한국어 교육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한국어 전공자가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인턴십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열정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 협력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세종학당, 재외동포청 등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학 현장에서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



심용휴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장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수 프로그램이 초·중등 교사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세종학당이 비정규 과정 위주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 포럼과 현장 경험 공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한글학교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체성 교육이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한다. 동시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현실은 늘 안타깝다.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며, 동시에 미래와 직결된 실용적 과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현장의 노력이 맞물릴 때, 한국어 교육은 더욱 지속적이고 힘 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교육자들이 경험을 나누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공유하며, 현지 교육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국문화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창**



- 02 창을 열며** 한국어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현실적 조건
 심용휴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장(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 04 특집** 광복 80주년
 이재명 대통령, 기념 경축사 키워드는 '평화·미래'
 이재명 대통령, 재외·재일동포에 광복절 특별메시지 발표
 미국 심장부 워싱턴에 “대한민국 만세” 올려 퍼져
 ‘120년전 애니깽’ 애환 멕시코서도 광복절 만세 삼창
 이재명 대통령, 원폭 80주년 맞아 피해동포 위로
 ‘원폭 80년’ 평화의 소녀상 앞서 희생자 추모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 12 기획** 이재명 대통령, 재일 및 재미 동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재미동포 간담회서 “한미동맹 새 역사 함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 16 이달의 재외동포** ‘압록강은 흐른다’ 저술한 독립운동가 이의경 지사

- 18 인터뷰**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박민서 씨, 생생한 경험으로 글로벌 청년과 소통
 웹툰 작가 강한솔 씨, “친근한 언어와 시각적 재미로 실생활과 연결”

- 20 초대석** ‘케데헌’ 공개 이후 모국 첫 방문... “큰사랑 감사...한국 문화에 자신감 가져야”

- 22 글로벌 코리안** 미국 동전에 첫 한인 여성...장애인권 운동가 박밀번
 아르헨 한인 2세,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 24 OKA 뉴스** 국내 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첫 개최 외

- 26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도 소비쿠폰 신청 가능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념 경축사 키워드는 ‘평화·미래’

5천500자 분량 메시지서 ‘빛’ 가장 많이 사용...이어 독립·평화·민주순
대외 메시지도 ‘대화·협력’ 방점...25분 연설에 약 25차례 큰 박수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빛’과 ‘평화’였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정부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짙은 색 정장에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 차림으로 나섰다.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난 6월 4일 취임일 브리핑 등 계기에 착용했던 넥타이 디자인이었다. 함께 참석한 부인 김혜경 여사는 흰색 한복을 입었다.

이 대통령이 약 25분간 한 연설은 약 5천 500자 분량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국민’, ‘정부’, ‘나라’와 같은 일반적 단어를 제외하면 ‘빛’이라는 단어가 총 19회 등장한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14회), 평화(12회), 민주(11회)·미래(11회), 주권(7회) 등 순으로 많았다. ‘민주화’, ‘민주국가’, ‘민주화운동’, ‘민주공화국’ 등으로 국민의 성취를 부각하고, 북한·일본 등을 향한 대외 메시지에서 갈등보다는 평화에 초점을 맞춰 협력과 대화를 강조했다.

지난 정부 경축사에서 도드라졌던 ‘자유’와 ‘통일’은 각 2회로 빈도가 대폭 줄었다. 또 ‘북한’ 대신 ‘북’, ‘북측’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조하는 대목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약 25회에 걸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올해 경축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단상에는 80개의 태극기가 비치됐고,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무대에 올라 80주년의 상징성을 더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과정에 참여했던 배우 조진웅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행사 후반 조진웅·전지현 배우 등이 출연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암살’의 일부 장면이 커다란 화면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이은숙의 후손 김종민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31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창**

이재명 대통령, 재외·재일동포에 광복절 특별메시지 발표

“재외동포 자랑스럽다…인재 양성 뒷받침 재일 동포들의 애국심 영원히 잊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재외동포에 특별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재외동포 사회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며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동포 여러분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신 곳이 어디든,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자랑스러운 조국, 믿고 기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일동포들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한 재일 동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빼앗긴 빛을 되찾은 데에는 재일 동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일 동포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참혹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항상 조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많은 고비마다 재일동포들의 도움이 이어졌다”면서 “조국의 민주화 여정 가운데 재일동포 청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들의 희생도 컸다”고 전했다.

특히 “전 세계 173개 대한민국 공관 중 유일하게 현지 동포들의 기증으로 설립된 아홉 개의 공관은 재일동포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강조했다. **[참]**

미국 심장부 워싱턴에 “대한민국 만세” 울려 퍼져

샌프란시스코 시청서 사상 첫 기념 행사 열려...1천여명 참가

광복 80주년을 기리는 기념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바 어니스트 커뮤니티 컬처센터에서 동포와 미 주류사회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버지니아·메릴랜드 한인회와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주미대사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광복회 워싱턴지회 등이 후원했다.

기념식은 피아노·바이올린 2중주, 청소년 합창단 'K-하모니'의 노래, 디담새 한국전통예술원의 난타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한미 혈맹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중 주미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했다. 대통령은 “80년 전 우리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결실로 빛을 되찾았다”며 “자유와 주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마크 워너 미 연방상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문일룡 페어팩스 교육위원 등도 차례로 축사에 나서 광복의 의미를 함께 새겼다.

행사장 로비에는 독립운동 관련 사진전이 마련됐고, 무대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 “광복 80주년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문구가 걸려 감동을 더했다. JUB 한국문화예술원의 축하 공연과 이청영 씨의 ‘대한독립만세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으며, 합창단이 한복을 입고 광복절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이들이 함께 따라 불렀다.

행사 말미에는 김인철 미동부 재향군인회장이 선창한 ‘대한독립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념 떡을 나누고 패널에 “대한민국 영원하라”, “워싱턴 동포사회 만세” 등 메시지를 남겼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시청에서 성대하게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양국 간 우호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사회



1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바 어니스트 커뮤니티 컬처센터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각계 인사와 한인,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가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한인 1세대를 비롯해 2·3세대들이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가 주최하고 워싱턴대한축구협회(회장 박희춘)가 주관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축구대회가 1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인 사회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120년전 애니깡’ 애환 멕시코서도 광복절 만세 삼창

89세 한인후손 2세, 한복 차려입고 “만세” 선창...“뿌리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

8월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동부 유카탄 주(州)의 중심 도시 메리다의 팔라시오 레알 에스파냐 연회장에서는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다.

2~5세대 한인 후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한국 독립 역사 개관 설명, 유카탄 주지사과 메리다 시장 축하, 이상희 주멕시코대사관 총영사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펼쳐진 사물놀이와 부채춤에서 한인 후손 5세인 한복 차림의 리아(12) 양은 한국 가락에 맞춘 공연을 선보이며 가족들의 함박웃음을 자아냈다.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아버지의 왼팔에는 ‘리아’라는 한글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행사의 백미는 짧지만 강렬한 ‘멕시코식 만세 삼창’이었다. 1936년에 멕시코에서 태어난 ‘한인 후손 2세’ 마리 아 암파로 김 암(89) 할머니가 음료를 손에 든 채 건배사 하듯 또렷한 발음으로 “만세”를 3번 선창하자, 곧바로 나머지 참석자들의 메아리 같은 외침이 이어졌다.

무남독녀였다는 김 암 할머니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8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다시 28명의 자녀(김 암 할머니의 손주)를 낳았다”며 “여의치 못해 저는 한국엔 가본 적 없지만, 내 안에 한국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암 할머니의 부친인 미겔 김 손 선생은 120년 전인 1905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 호에 몸을 실은 1천31명 중 한 명이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궁핍의 나날 속에 당시 선조들은 멕시코를 기회의 나라로 여겼고, 나중에 ‘한껏 부풀린 사탕발림’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근로자 모집 신문 광고에 기대감을 품은 채 과감하게 배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유카탄주(州) 메리다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감환 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지부 상임대표(오른쪽 4번째)와 이상희 멕시코대사관 총영사(가운데) 등 주요 참석자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후안 두란 공 유카탄한인후손회장

이들이 배치된 유카탄주 에네켄 농장은 그러나 거의 ‘생지옥’에 가까웠다는 게 각종 기록물과 구술 속에 담겨 있다. 날카로운 이빨 가진 선인장 일종인 에네켄은 당시 수요가 많았던 선박용 로프의 재료였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멕시코 이주 한인 1세대는 소위 ‘애니깡’ (에네켄)이라고 불린다. 애니깡은 당시 한인들의 피눈물 섞인 일상을 대변하는 용어처럼 쓰인다.

1세대 멕시코 한인인 그러나 고초 속에서도 독립군 양성을 위해 송무학교를 세웠으며, 고국에 독립자금을 송금했다. 김 암 할머니의 부친인 미겔 김 손 선생은 생활비 일부를 쪼개 한국에 보냈다.

‘한인 이민 3세대’ 돌로레스 가르시아(64) 한인이민박물관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 올해는 특별한 해라는 것을 느낀다”며 “많은 한인 후손과 함께 (선조의) 뿌리를 다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창]**

이재명 대통령, 원폭 80주년 맞아 피해동포 위로 “전쟁 참상 반복 않도록 평화 가치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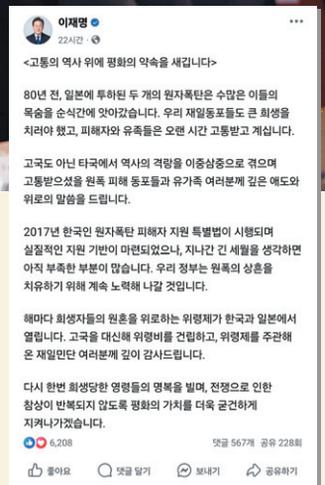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일본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적었다.

“원폭 상흔 치유노력 계속해 나갈 것”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창**

‘원폭 80년’ 평화의 소녀상 앞서 희생자 추모제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서도 한국인 희생 영령 추모제…“아픈 역사 기억”

일 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8월 6일 당시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히로시마 원폭 8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여는 수요시위와 연계해 이뤄졌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사흘 뒤인 8월 9일엔 나가사키시에도 투하했다.

한충목 준비위 공동준비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민간인 30만 명이 희생됐고, 그중 최하 7만명이 조선인”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7만여 원자폭탄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원폭 투하는 반(反)인류 전쟁범죄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 촉구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에서도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고, 아픔의 역사를 되새기는 추모제가 엄수됐다.

경남도는 6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제80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 영령 추모제’를 했다. 추모제는 유래비 제막식과 제례 행사, 추도사, 헌시 시상식,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 김윤철 합천군수, 장진영 경남도의원, 진경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원폭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8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모행동’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영상 추도사에서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원폭 피해자 2·3세대를 위한 의료비 감면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당시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약 70%가 합천 출신으로 알려져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현재 합천에는 200여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추모제가 엄수된 위령각에는 1천167위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돼 있다. **창**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취임 72일만에 광화문광장서 국민대표들 임명장...“한없이 영광스럽고 큰 책임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국정 중심에 국민 둘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맘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재용 등 경제인과 문 전 대통령 등 여권인사 총출동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맘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80인의 국민대표들이 무대에 올라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은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울러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민국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연설을 마쳤다.

“대한민국의 힘은 언제나 국민”

이날 이 대통령은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벵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흰색 벵타이에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차량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국민에게 손을 들어 보이거나 손바닥을

마주쳐 인사했다. 객석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원로 등과 악수했다.

평화·안전·꿈과 혁신 강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과도 인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광화문광장을 찾아 임명식을 지켜봤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배구선수 김연경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전직 대통령 가족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대거나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모두 불참했다. **창**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



재미 동포 간담회

2025. 8. 24.(일), 워싱턴 D.C.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 새 역사 함께해달라”

한미정상회담서 이 대통령 “김정은 만나달라”...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재미 교포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재미 교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며 “(양국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며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

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사회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만찬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 “트럼프는 북 문제 풀 유일 인물”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나는 그를 여동생(김여정 부부장)을 제외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 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

이재명 대통령 “재일동포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한일정상회담...“민주 대한민국 복귀 후 한일관계 정상궤도”

한일,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일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정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 도착한 뒤 시내 호텔에서 가진 재일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아픔과 투쟁이 반복된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이중 민단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재일동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8 독립선언이 발표된 YMCA 강당,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히비야 공원 모두 이곳에서 가까운 곳”이라며 “도쿄 중심지 곳곳에 동포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식민 지배의 아픔에 이어 분단의 아픔까지, 조국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의 서러움은 컸을 것이지만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이중 민간중앙본부 단장 등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 정말로 많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아라카와강변에서 벌어진 역사'는 간토대 학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긴 세월의 여우곡절을 넘어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며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동포사회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 회담을 갖고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움직임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

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회담 후에는 양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이 회담 뒤 그 결과를 공동의 문서 형태로 도출해낸 것은 17년 만이다. 양 정상은 또 나란히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하면서 회담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관심을 모은 안보 협력에 대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화과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공감했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압록강은 흐른다’ 저술한 독립운동가 이의경 지사

3·1운동 참여·대한청년외교단 활동…망명 뒤 유럽서 독립운동 전개
1927년 세계피압박민족회의 참가해 국제사회에 독립 의지 알려



8월 '이달의 재외동포' 이의경 지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5년 8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유럽에서 조국의 독립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한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의경(1899~1950, 필명 이미륵) 지사를 선정했다.

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의경 지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현재 서울대 의과대) 재학 중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청년외교단' 편집부장을 맡아 '외교시보'와 '국치기념경고문' 등 선전물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독립 여론 조성에 앞장섰다.

3·1운동에서 시작된 독립의 길

그는 이 같은 활동이 일제에 발각되자 탄압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호 임무 수행을 위해 설립한 대한적십자회에서 간호사 양성 업무를 맡았다.

상하이에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민족의식을 더욱 다진 그는 1920년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안봉근과 함께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건너가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피압박민족회의'가 열리자 독일 뮌헨대학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그는 베를린에서 유학 중이던 이극로, 황우일, 프랑스의 김법린 등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유럽으로 이어진 항일 투쟁

이들은 '한국의 문제'라는 결의문을 만들고, 이를 독일어, 불어, 영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이 처한 상황과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의경 지사는 1928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가 이미륵(필명)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3·1운동 참여, 망명 과정을 자전적 형식으로 담아 1946년 독일어로 출간한 장편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인간성 상실의 상황에서도 지켜낸 인간 내면의 순수성과 가족애 등을 다뤄 전후(戰後) 상실감에 빠져 있던 독일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학가 이미륵으로 변신

독일의 한 잡지는 당시 '올해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으로 이 소설을 선정했고, 이후 독일 교과서에도 수록돼 독일인들에게 널리 읽히며 우리 민족의 삶과 한국의 정서를 현지에 전파했다.



‘압록강은 흐른다’ 독일어 초판본(1946) 이미릭박사 기념사업회 제공

이 지사의 문학은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 시 독일어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 박사의 독일 차관 과정에 대한 2009년 회고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조건 없이 제공한 배경에는 이 지사의 작품을 통해 형성된 독일인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공감의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길

이후 1948년부터 자신의 모교 원혜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학과 동양철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던 그는 1950년 3월 위암으로 타계했다.

독일인들은 그를 진정한 휴머니스트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기억했다. 이 지사의 인품에 매료되어 의학에서 동양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훗날 원혜대학 동양학부 교수가 된 그의 제자 볼프강 바우어(Wolfgang Leander Bauer)는 “자기를 본보기로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입증한 한 인간이자 작가”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2024년 11월 독일 그라펠핑에 안장돼 있던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의경 지사는 3·1운동의 함성을



2024년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봉환식이 열리고 있다. 이 지사의 유해는 전날 독일 현지 묘지에서 추모식이 끝난 뒤 이날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보훈부 제공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봉환을 앞둔 2024년 11월 14일 독일 그라펠핑 신묘지 내 장례식관에서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유럽까지 이어갔으며 문학을 통해 조국과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라며 “광복 80주년인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이의경 지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자 8월의 재외 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천택 독립운동 지사, 6월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7월 박노학 전 사할린연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이 선정됐다. [▶](#)

“‘작은 외교관’으로 사명감 되새겨 정체성 확인한 소중한 여정”

“재외동포청 서포터즈는 단순한 대외활동이 아니라, 해외에 살면서도 한국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15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온 박민서 씨는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작은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독도와 위안부 문제,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 88서울올림픽, 두바이 동포사회 소개, 해외 취업 준비, 재외국민 제도,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가 공감할 만한 주제의 콘텐츠를 직접 꾸준히 제작해 온 청년 활동가이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간 그는 청소년기를 중동에서 보냈다.

고등학생 시절 한국을 알리고 싶어 친구들과 ‘Kloud’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독도의 날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대학 시절부터는 재외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웹매거진 ‘위즈덤 아고라’(Wisdom Agora)를 공동 설립(Co-founder)해 운영해왔다. 국제학교 출신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 매체는 재외 청소년이 직접 쓴 글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장이다.

그는 “한국 대학생과 해외 청소년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이러한 그간의 다양한 경험이 재외동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비슷한 해외 청년들과 소통할 기회를 찾다가, 여러 기관의 서포터즈 활동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서포터즈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상 ‘Later is too late’(더 늦기 전에)로 항일영상역사재단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험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을 넣었는데,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취였다”고 말했다.

그는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정보+이야기’를 담은 제작 방식을 강조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곁들여 더 풍부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



재외동포청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서 씨.

했다.

“아포스티유 발급처럼 처음엔 낯설고 복잡했던 과정을 실제 경험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그가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한국이민사박물관 방문 영상이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 저의 경험을 녹여냈는데, 이를 본 분이 ‘학생들과 꼭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하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현재 에라스무스 문두스 석사과정에 참여 중인 그는 워킹홀리데이와 유학 과정에서도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제작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장차 박사 과정으로 나아가 교육공학과 국제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스타툰으로 동포와 국민 잇는 다리 되고 싶어요”

“언젠가 저 역시 재외동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의 정책과 활동은 제게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제 삶과 맞닿은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웹툰 작가 강한솔 씨(31)는 최근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동포유’로 위촉됐다. 한국에 거주하지만, 중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그는, 자신이 곧 재외동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감각에서 출발해 이번 활동에 지원했다. 그에게 재외동포청은 ‘나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닌 ‘미래의 나와 연결된 정책’이었다.

강 씨가 지원을 결심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한국과 해외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직접 체험했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특히 제가 가진 SNS 인스타툰 작업 경험이 동포청의 정책을 쉽고 따뜻하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동안 인스타그램(@zhulaoshi_wife)을 통해 ‘인스타툰’이라는 형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짧은 글과 귀여운 그림체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 없이 다가갔다. “처음 재외동포청을 알게 됐다”, “정책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 이해가 잘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해외 거주 경험자와 국제결혼 부부들로부터는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 같다”는 공감을 얻었다.

그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스토리텔링’이다. “단순히 글이나 카드 뉴스가 아닌, 캐릭터와 상황을 활용해 정책이나 제도를 쉽게 풀어내는 것이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했다.

특히 자신의 삶을 적절히 녹여내어 콘텐츠에 진정성을 더하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동포청의 정책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이 닿아 있는 이야기’라는 공감의 지점을 만들어낸다.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늘 ” 친근한 언어, 시각적 재미, 실생



5월 21일 재외동포웹컴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제기 서포터즈인 ‘동포유’ 출범식. 오른쪽서 3번째가 강한솔 씨.

활과의 연결’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와 연결해요. 여기에 인스타툰 캐릭터들이 상황극처럼 대화를 나누면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가 되죠.”

강 씨가 지금까지 제작한 콘텐츠 중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은 ‘재외동포청 SNS 소개 인스타툰’이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친근하게 알려주는 작품이었다”며 “동글동글한 그림체 덕분에 자칫 딱딱해보일 수 있는 정보가 쉽게 다가간 것 같다. 초심을 되새기게 해주는 콘텐츠라 더 애착이 간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문화 기획 업계에서 6년간 활동하며 대기업 캠페인, 공공기관 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감각을 쌓았다.

그는 “재외동포청의 활동과 정책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으로 따뜻하게 풀어내겠다”며 “동포와 국민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케데헌’ 공개 이후 모국 첫 방문 “큰사랑 감사…한국 문화에 자신감 가져야” 강 감독 만난 이재명 대통령 “자랑스러운 문화강국 만들겠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매기 강 감독

“넷플릭스와 소니(제작사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는 처음부터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줬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만든 매기 강 감독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관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22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내한 간담회에서 강 감독은 “옛날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H.O.T.를 굉장히 좋아했고, 봉준호 감독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며 “특히 영화 ‘괴물’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데헌’ 후속작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다”면서도 후속작에 넣고 싶은 아이디어는 많다고 귀띔했다.

강 감독은 “한국의 여러 가지 음악 스타일을 더 보여주고 싶다”며 “트로트가 요즘 난리인데 그런 것들(트로트 곡)이나, 헤비메탈도 좀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서태지, H.O.T., 봉준호에 영향”

‘케데헌’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비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강 감독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안정을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느냐”며 “이런 지점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감독은 ‘케데헌’ 시사회에서 한 6살 아이가 남긴 후기를 언급했다. 그는 “그 아이는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극 중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가진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 작품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수치심’이라고 짚었다.

루미는 강 감독 본인의 모습을 일부 투영한 캐릭터이기도 하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여자를 보고 싶었다”고 했다.

“많은 애니메이션이 여성 캐릭터를 못생기지 않게, 너무 웃기지 않게, 바보 같지 않게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작품에선 음식도 이상하게 먹고, 웃긴 표정도 만드는 그런 여자를 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0일 녹화방송 형태로 공개한 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 The Next Chapter)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 대통령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매기 강 감독(왼쪽)을 만나 K팝 산업의 미래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제공]

고 싶었죠.”

루미는 강 감독의 딸 이름과 같다. 그는 딸이 직접 루미의 어린 시절 목소리 연기에 나선 과정도 들려줬다.

강 감독은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기도 해야 하는데 겁 없이 막 하는 걸 보고 딸이 참 자랑스러웠다”며 “딸이 ‘내가 잘 하면 엄마 영화가 더 흥행해지니까’라고 말했다”고 웃음 지었다.

“후속작엔 트로트도 담고 싶어”

제작 돌입부터 공개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공들인 작품이지만,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강 감독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골든’은 ‘케데헌’ OST 중 작업하기 가장 어려운 곡이었다고 회상했다. 강 감독은 “주인공 루미의 소망과 열망을 담은 대표곡이어서 영화에서 매우 크게 중요도를 가진 곡이었다”며 “최종 버전을 찾기까지 7~8개 버전을 거쳤다. 최종 버전을 들었을 때 ‘아, 이거다’라고 느꼈고,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다.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워너브라더스, 일루미네이션에서 스토리 아티스트 등으로 일했고, ‘케데헌’은 강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케데헌’은 지난 6월 공개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에 올랐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을 탈환했다. 빌보드는 25일

(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보다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려 통산 2주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위대한 작품 나온 게 기적”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문화 산업과 관련해 “한국 문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리랑 국제방송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 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어디까지 왔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초입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에서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 등과 문화강국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문화 산업이 걸음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비고 뿌리가 썩어가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튼튼한 뿌리를 만들 것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대를 잘 갖춰 핵심 산업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을 만들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거목이 자라려면 풀밭이 잘 가꿔져 있어야 한다. 순수예술 분야 지원·육성도 필요하다”며 “그건 시장이 아닌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기회를 골고루 만들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거의 방치돼 있었다”며 “이런 위대한 작품이나 예술가들이 나온 게 정말 대단하고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미국 동전에 첫 한인 여성 장애인권 운동가 박밀번

정책 · 법률 확대에 큰 기여...“맹렬하고 연민 어린 활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 오른쪽은 미국 조폐국이 11일부터 유통할 스테이시 박 밀번 헌정 25센트 동전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11일(현지시간)부터 시중에 보급된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ern · 1987~2020)이다.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미 조폐국에 따르면,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

이나에서 성장했다. 미국 내 일부 한인 언론은 밀번의 한국 이름이 박지혜라고 전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았다. 밀번은 지역 사회의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고,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스무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적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해 자신이 10대 시절 동료 운동가들과 함께 개념을 정립한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한다. 밀번은 이 운동을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삶을 사는 유색인종, 이민자, 성소수자, 노숙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다.

밀번은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돼 정책 자문 활동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숙자 등에게 마스크와 의약품,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팀을 구성해 활동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수술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33번째 생일날이었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문제해결자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장**



아르헨 한인 2세,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세실리아 강 감독, 첫 장편영화 '장남' ...이민 온 가족 이야기 담아



아르헨티나 한인 2세 세실리아 강 감독

아르헨티나 한인 2세인 세실리아 강 감독이 첫 장편영화 '장남' (Hijo Mayor)으로 제78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파히나12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 감독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을 만든 신인 감독들이 경쟁하는 '현재의 감독 경쟁' 부문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강 감독은 1985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 국립영화실험제작학교(ENERC)에서 공부했다.

그는 2015년 단편 영화 '비디오게임' (Videojuegos)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후보에 오르며 데뷔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내게서 출발한 배'로 국내에서도 알려졌다.

'장남'은 강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아르헨티나로 이

민 온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강 감독은 "‘장남’은 기억 혹은 기억하기로 선택한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한 한 남자의 낭만적인 흔적이자, 어떻게 그 길이 도망칠 수 없는 제 삶의 시작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파히나12가 전했다.

그는 장남인 아버지의 아르헨티나 이주 경험을 청소년 딸의 시선으로 본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민자를 주제로 한 영화 '미나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4년 전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강 감독은 당시 영화감독으로서의 거창한 목표를 말하기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이야기꾼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 바 있다. **장**



국내 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첫 개최

러·중·베·CIS 출신 25명 13~16일 광복의미 새기며 모국 체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내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를 처음으로 13~16일 개최했다.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 이번 캠프에는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베트남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인 동포 중고생과 대학생 멘토 등 25명이 참가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모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13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방문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가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개회식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중도 입국



국내체류 재외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참가자들.

경험이 있는 친구·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응원하며 모국에서의 꿈을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개회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인천 소재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이동해 우리 재외동포들의 이민 역사를 배웠다.

동포청, 한글학교 역량 강화 돕는 순회연수 개최

미국 실리콘밸리·뉴비전·다솜학교서 교사·학생·학부모 300명 참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4~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미동포 차세대 육성을 위해 '주말 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와의 협업으로 쿠퍼티노에 있는 실리콘밸리한국학교, 밀피타스에 있는 뉴비전한국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교장·교사 150여명을 비롯해 학생 70명과 학부모 80명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 애틀랜타 연수회 이후 두 번째다.

연수는 'AI 디지털 시대의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최신 교수법과 학교 및 교실 운영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

특별 초빙 강사로 나선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뉴비전한국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광복 80주년, 한국을 빛낸 디



'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 연수' 참가자들.

아스포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차명 광명서초등학교 교사와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는 실리콘밸리 한국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법을 전했다.



‘미 시애틀지역 진출 스타트업 찾아요’…29일까지 한상넷서 모집

AI · 빅데이터 · 친환경 스타트업 선발 · 진출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29일까지 모집한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최근 주목을 받는 AI · 빅데이터와 친환경 분야 스타트업 중 우수 기업을 뽑아 멘토링하고,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투자유치회에 참가시키는 사업이다.

시애틀 투자유치회는 동포청이 오는 11월 자체 개최하는 행사로 재외동포 투자자, 창업자, IT 종사자 및 현지 투자자가 참석 예정이며, ▲스타트업의 기업 발표(IR), ▲스타트업, ▲투자자 간 1:1 비즈니스미팅, ▲네트워킹 행사, ▲글로벌 기업 본사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지난 6월 10일 재외동포청 주최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 모습

위치하고,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기본증명서 없이 재외국민등록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 법령 개정안 공포…이상덕 청장 “수요자 중심 영사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공포했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됐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11일: 국내체류 고려인·중국동포와 사회공헌 활동
- 12일: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13~16일: 국내 체류동포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 14~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말 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연수
- 29일: 국내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재외동포 청년 직업연수 수료식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도 소비쿠폰 신청 가능

국내 체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2차는 9월 22일~10월 31일에 지급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이며, 오는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는 영주권(F-5)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갖췄거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1차(7월 21일~9월 12일)와 2차(9월 22일~10월 31일)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전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온라인 방식과 제휴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청기간 중 국내에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지급 기준일에 해외 체류 중이었던 경우, 9월 12일까지 귀국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출입국 기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포스터

하다.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이면 해당 도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도 지역일 경우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기한 이후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상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정해진 온·오프라인 채널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525)나 국민콜 110을 통해 가능하다.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국민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

APEC 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

APEC 2025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2025.8.26.(화)-28.(목) | 대한민국 경주



광복 80년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光復

